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23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135:1-3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36장(새 36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25번(새 45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견디고 버티며 끝내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일지라도, 잠깐의 만남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또한 상황과 사람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고치고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깨달아 십자가 앞에서 몸을 쳐 복종케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끊임없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날이 다가올수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빌립보서 4:8-9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 봉 헌(offering) 353장(새 317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217장(새 425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속회 적용점을 잘 활용하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3. 최은진권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마태복음 25:31-46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며 이들에게 한 것이, 곧 자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작은 자들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지금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이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칩시다.

<말씀묵상> 빌립보서 4:8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8절) 생활 속에서 나의 행동 기준은 주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2.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나도 가족이나 혹은 지인에게 나처럼 살 것을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면서 아버지의 행하신 것처럼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흑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하나님의 완전과는 다릅니다. 완벽한 행동보다는 완전한 방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길을 잘못 들었어도 다시 복귀하면 순위에는 못 들어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실격자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참된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결국 그 사람은 영생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전반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주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사도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에든지’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 경건과 옳음, 정결과 사랑, 칭찬과 덕과 영예가 뒤따릅니다. 이것 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버리거나 제외하면 결국에는 진리를 거스르는 결과를 빚어 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진리를 자기 입장(정욕과 탐심)에 서서 편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진리를 자아의 욕심과 함께 섞을 때 죄를 낳게 됩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